

# 양호교사의 활동기

김 화 자

서울 용산공업고등학교 양호교사

오늘도 다른날과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명감을 갖고 학교 문을 들어섭니다.

밝게 웃으며 맞이하는 학생들의 건강한 인사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학교에서 그들이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선택된 보람과 자부심으로 생활하여온 나의 업무는 양호교사로 20여년을 지나온 지금에도 가볍지 않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아침에 교문을 들어서면서 학교의 안전점검이 시작됩니다. 청소상태, 화장실 쓰레기장, 온수장, 식당의 청결상태 그리고 각 실습장의 안전상태를 살펴보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양호실에는 벌써 감기로, 두통으로, 소화불량으로 상처 때문에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호소하는 감기의 증상도, 원인도 다양하기에 투약과 치료법이 다르고, 두통도, 소화불량도, 설사도, 각자의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주어진 약과 치료방법이 다르고 보건교육도 다르게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에게 잘못 전달된 의학상식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하고 치료법이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설명하여야 하기에 이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이곳 공업고등학교의 각 실습장은 공장과 흡사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비상약품과 안전관리와 구급처치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실습담당교사와 조교 그리고 기사들이 안전지도를 철저히하여

다소 안심은 되지만 움직이는 기계와 톱질 끌, 망치 등으로 실습하는 남학생과 서툰 여학생의 낯뻘과 과열된 인두로 인한 크고 적은 화상으로 양호실 문은 닫혀 질줄 모르게 바쁩니다.

체육수업을 통하여 성교육, 금연교육, 약물오남용과 건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VTR”을 통한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지를 받아보면 그 반응이 각양 각색입니다. 또 때로는 시청각교육을 받고 2명 정도가 찾아와 질문을 하면 반갑고 그들의 질문 자체가 체계가 없고 서투러도 잘못 알고있던 지식을 바르게 설명할 수가 있어 보건교육에 대한 보람을 갖게 됩니다. 실습시간이 전공과목으로 전 과목의 70%를 차지하는 이들에게서 1시간의 보건교육을 위한 수업시간을 얻을 수가 없어서 체육시간 교편시간과 윤리시간을 통하여 VTR을 이용하여 전달교육을 할 수가 있음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조용히 찾아와 성문제, 성병문제 심장병 성인병에 관한 문제 정신적인문제 때로는 심각한 고민을 상담하기 위하여 양호실 문을 두드리면 이들의 문제를 하나 하나 의논하고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교의와, 보건소와 의논하여 건강문제를 도와주고 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실 선생님에게 의뢰하여 부끄럽기도하고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면 두통증상도, 소화불량도, 위통도, 불면증도, 심장병도, 빈혈증도,……자연치유되어 비로서 건강한 생활을 찾게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즐거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참기가 힘든 질병을 앓고있어도 심한 상처가 있어도 치료를 앓고 병원치료도 양호실

치료도 멀리하고있는 학생의 가난과 성격이 친구나 담임선생의 마음을 아프게하여 비로서 양호교사의 치료를 받게되는 학생들이 있기에 양호실의 문은 항상 열리어 있어야 하고 문턱도 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은 1930년 이화학당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관리를 위하여 의무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양호교사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70년대인 20여년전 어느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거의 매일 양호실을 찾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매일 찾는 불편한 건강문제가 다릅니다. 두통이란다. 위가 쓰리다고한다, 설사라고 또 잠을 못잔다고, 구토증이 있다고, 빈혈증이 심하다고 손발이 저리다고 주 3, 4일을 찾아왔다. 담임선생에게 알아보니 성적도 상위권이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윤택하다고 한다. 자세히 알아보니 부모님께서는 새벽 일찌기 가게에 나가고 노할머니와 가정부가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한다. 가정부는 노할머니를 주로 보살피고 식사와 도시락관리도 성심껏 잘하여 주었다. 그런데 왜 건강상태가 나쁜가가 문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었다. 야단도 치고, 숙제도 주고 책을 사주어 읽도록 하였고 보다 가난한 친구와도, 보다 외로운 친구와도, 보다 불행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무관심을 보여주면서 하였더니 불과 2개월만에 2년동안 앓던 질병이 치유되고 혼자 설 수가 있었다. 아주 건강한 학생이 되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과중한 업무와 서툰 양호교사생활로 힘들었던 어느날, 교실에서 장난을 하다 손을 다친 학생이 양호실 문을 “쿵”하고 들어와 약간 붉힌 손가락을 내어민다. 가벼운 불쾌감을 느낀 나는 “남자가 고까지 상처로 양호실에 찾아오니? 하고 놀려주었다. 그 학생은 얼굴이 붉어져서 그대로 치료도 받지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조그마한

학생이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 양호실을 찾아왔는데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까지 감아 주었던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 양호반 학생이 조용히 찾아와 “선생님께서 누구는 치료도 안고 돌려보내고 누구는 가시에 찔렸는데 붕대까지 하여 주셨어요? 하며 정색을 하였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였더니 두학생 모두 한반이라고 한다. 여기에 양호교사인 나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 한사람이 대하는 학생들의 수는 2000여명이지만 그들 한사람 한사람이 찾는 양호교사는 나 한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비추어진 비중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고 크게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친절하고 한사람 한사람에게 한결같은 처치를 하게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가 학생의 일생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라는 옛말이 나의 머리를 때린다. 그때 나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그처럼 학생을 부끄럽고 비참하게 하였을까 하는 반성으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었습니다.

또 20년전 그당시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나 성교육을 할 수가 없었을때 자습시간이 있어 여고 2학년 교실에 들어가 순결교육과 임신과정, 임신증상을 가르치고 양호실에서 쉬고있는데 창백한 얼굴로 찾아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니까?”라는 질문에 나는 무엇인가 큰 망치로 때리려는 두려움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임신과정을 너무나 자세히 알려 주고 설명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17세 소녀인 그에게 친척 오빠가 여러차례의 성행위를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은 가벼운 죄의식뿐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고있지 못하였던 무지가 20년전 여고생에게는 많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학생과 비밀로하고 학생 부모님을 만나 병원을 찾아 치료하고 뒷정리를 한후 정상적인 생활로 대학까지 진학한 그 여학생의 성의 무지는 나로하여금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나라는 청소년의 성교육 실시를 위하여 애쓰게된 원동력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10여년전에 일입니다. 방학기간이라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생의 전화가 왔다. 다급한 음성이라 서둘러 만나자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손짓을하는 학생을 만나 이런일 저런이야기를 나누다 나를 찾는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성병에 걸린것 같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되었다고 하며 서두르는 그를 진정시키고 차분히 알아보니 연고제의 남용으로 가벼운 습진에 강하고 약한 연고제를 여러가지 발라 각질증상과 변색반응이 나타나고 감각이 둔화되고 투박하여져 걱정이 되고 죽고싶다는 것입니다. 성행위의 경험에 있느냐는 질문에 당황하면서 부정하던 표정에 웃으며 그것은 가벼운 습진에 연고제를 남용하고 그 부위를 깨끗히 하지않아 피부의 각질화와 착색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피부과에 찾아가면 정확한 치료와 약을 준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목욕을 가서 확인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도록 설명을 하자 웃으며 밝은 인사를 하고 사라지는 학생의 뒷모습이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때 잘못 알고있는 성 지식이 학생들에게 주는 불안과 부작용을 설명하게 합니다.

몇년전에 일입니다. 오전중의 업무가 어느정도 정리되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창백한 여학생이 친구의 부축을 받고 양호실문을 들어섰습니다. 서둘러 침대에 눕히고 맥박과 혈압을 측정하고 심장상태를 파악하고 진정된후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유인즉 약물과용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정신력이 약하고 겁이 많아 참는힘도 약하여 약을 너무 선호하여 항생제도, 진정제도 진통제도 너무 쉽게 약을 찾고 너무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한 예로 두통에도 1정, 피로해서도 1정, 복통에도 1정, 잠을 못자서 어지러워도 1정, 이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이도 진통제를 찾는 그 여학생은 찾아온 오전 11시에 벌써 3정

의 게보린을 먹었다는 무서운 사실이다.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 희석 주사를 놓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그의 어머니는 편히 “저도 진통제 2정씩 먹어야 약효를 느낍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체육시간과 교련시간을 통하여 약의 오용과 남용을 약의 과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교육하였는데 마스크를 통한 약의 선전과잉에서 오는 항생제 진통제 진정제…… 등의 남용은 막을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3일간을 입원 치료 받고온 여학생이 양호실로 찾아와 의사선생님께서 꼭 찾아가 절을 하라고 하셨다는 의미 있는 인사를 받고 약의 남용과 약의 선호심리가 인체에 주는 부작용을 강조하게된 지금의 나에게준 큰 선물이었던것 같습니다.

양호실에서 전교생의 건강을 지키고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항상 현대 의학을 연구하고 유행하는 질병을 알아보고 안전관리를 철저히하도록 지도하고 연구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은 1930년 이화학당의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관리를 위하여 의무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양호실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학교보건사업은 1950년에서 1957년에 걸쳐 발전하였고 1960년 정상적으로 학교보건법이 생기고 양호교사와 양호교사의 업무분장이 체격검사, 학교급식과 전염병예방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양호교사로 근무하였던 20년전에는 너무나 업무양이 많아 바쁘고 해야 할 업무도 체계화 되어있지 못하여 매일매일을 서두르기만 하였습니다.

결핵왕국 이었던 60년대,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결핵관리사업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국민학교에서 실시되는 결핵관리업무는 말할 수 없는 큰 효과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결

핵예방접종, 결핵검진, 결핵예방교육 결핵학생 개인개인의 투약과 그 가족관리까지 상담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기생충왕국 이었던 그때에는 기생충검사를 년 2회 실시하였는데 기생충보유자가 20~30%로 각자에게 구충제를 학교에서 투약하였고 기생충감염과 기생충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해마다 찾아오는 전염병의 유행으로 콜레라, 장티프스, 뇌염등의 예방접종을 시행하였고 전염병의 예방교육은 물론 학교 구석구석의 청결과 방역, 소독관리와 구충구서에까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신체검사의 실시는 비교적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확치 않은 측정기라서 측정치에 혼동이 왔지만 체격검사의 기준은 서 있었읍니다. 의사의 치료와 진찰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청진기 갖은 의사선생님의 체질검사는 참으로 고마운 의료행위였고 구강검사는 충치가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과 교육이 되었고 학생 개인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또 그당시 각 가정에는 경제력의 부족으로 허약학생도 많았고 결핵학생도 지체장애자도, 심장병학생도, 기타 요양호학생의 수가 많아 그들의 건강상담과 담임선생과 체육과 선생님과의 협의사항도 많았었읍니다. 평일에도 양호실을 찾는 학생들의 건강문제도 다양하고 그 수자도 많았지만 학교예산의 부족으로 양호실의 시설도, 약품구입상황도 여의치 못하여 안타까웠던 우울한 기억도 있습니다. 학교실정이 여의치 못하여 양호실이 작고, 좁고 어두운 구석 방으로 옮겨야 했고 때로는 어느 특별교실의 일부분으로 옮겨야 하였고 침대도 없고 기타 시설도 부족한 양호실에서 것처럼 많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도 과중한 업무에 별다른 차질도 없이 수행하고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사정을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력하여 발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양호실의 업무는 주어진 환경과 구성상태에

따라서, 학교가 필요로하는 여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즉 도시의 학교와 시골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양호교사의 활동이 다르고 산간지방과 도시지방 또 국민학교와 중학교, 남학교와 여학교 그리고 남여공학이 인문학교와 실업학교 공업학교와 특수학교가 필요로하는 업무가 큰 차이는 없어도 각 학교에서 필요로하는 업무가 달라야 하기때문에 우리 양호교사의 활동능력과 가능성은 무한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즉 근무하는 위치에서 학교와 학생들의 Need에 따라 현명하게 보건활동과 보건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곳에서 학교의 전체적인 건강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노력하고 있는 양호교사는 응급처치만 담당하던 과거의 위치에서 전인교육에서 필요로하는 학교에서 요구되는 보건문제가 질병치료사업에서 질병예방교육으로 구급처치 및 약물투약은 물론이지만 질병처치에서 안전관리로 사고예방사업으로 또 성인병과 성병 그리고 약물오남용과 마약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바람직한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의 실시업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생활하고있는 환경에 따라 요구되고 필요로하는 보건문제가 다르기때문에 양호교사의 업무의 다양화와 발전이 요구되고 업무 또한 과학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학교 보건사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